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07	06. 14	06. 21
대표 기도	김영희 권사	이수현 집사	유미경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암7~9장, 대하1~18장)
2. 성령강림주일 -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안내 - 주일예배는 예배 담당자 외 예약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해바랍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5. 5월 생일 - 노지민(3일), 정진순, 한명희(16일), 유미경(18일), 이세현(23일)
6. 후보는 보관용으로만 제작합니다(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7. 나눔의 시간 -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장준화 형제(6월1일)
한국 방문	장용환 형제(6월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령강림주일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187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고전 12 : 4 - 11 (신p277) 이상호 목사
(1.Korinther 12:4-11)
- 설 교 Predigt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196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50장 (1절)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공멸이 아닌 상생으로

Linda & Richard Air 부부는 “자연에서 배우는 행복의 기술”에서 계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기를 소개했습니다. 부부는 계를 잡아서 얹은 양동이에 넣었더니 금방 밖으로 빠져 나왔는데, 계 두 마리를 얹은 양동이에 넣었더니 서로 먼저 빠져나가겠다고 싸우다 결국 두 마리 모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계는 서로를 끌어내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동이에 계로 가득 채워 넣으면, 계들은 모두 밖으로 나오려고 기를 쓰다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의 행동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만 잘 사면 된다는 의식이 결국은 공멸로 가는 길임을 암시해줍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침식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길은 더 많은 병원을 짓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정신을 치료하는 길은 먼저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생은 역사의 지평에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삶을 통해 축복의 근원으로, 은총의 통로로 거듭나고 도약하기를 기도합니다.

희망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 /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담임)

*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 Emily Dickinson -